월/요/광/장

박 선 정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나눔

새 밀레니엄의 문을 연 첫 해는 경진년 용의 해로 시작되었다. 세월은 흘러 다시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한다. 우리나라에서 용은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꿈을 실현해주는 상징적 영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상징임에도 틀림없다.

지난 해 우리 사회를 이끈 핵심 키워드로 소통과 공감이 맨 먼저 떠오른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을 활용한 소셜미디어의 성장은 빠른 속도와 경계 없는 광범위한 확장성으로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폭발적으로 확산시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SNS의 위력은 가히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 주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최초의 SNS선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힘이 작동되자 기존의 정치권력의 지형은 손쉽게 무너졌다. 청춘콘서트로 유명해진 안철수 교수는 급기야 대선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후보를 끌어내렸다. 인터넷 팟캐스트방송인 '나꼼수' 열풍은 SNS바람과 맞물려 변화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2011년은 분명 한국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올해는 이른바 '선거의 해'다. SNS의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 것이다. 60년만에 왔다는 흑룡띠 해의 상징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화생태계 전반에 걸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문화향유자이자 관객은 보다 적극적인 문화소비가 가능해졌다. 향유와 소비가 쌍방향에서 이루어지면서 수요자가 생산 및 창작과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발전은 관객에 의해 주도되면서 예술작품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예술에 보다 많은 관객을 결합하려는 문화예술단체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일이다. 예술가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고 예술단체는 예술가와 관객 모두를 네트워크로 형성한다. 결국 이 흐름은 문화정책을 이끌어가는 화두가 되어 문화향유자 즉, 수요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견인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전환은 이전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한정된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을 반성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둔다.

광주문화재단의 정책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문화소외계층의 하위문화가 그 고유의 가치를 표현하고 스스로 발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창의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나눔'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SNS 싸이월드의 '일촌'개념을 확장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문화나눔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공연관람을 지원하는 '모셔오는 서비스', 장애우와 장애우가족들이 댄스, 풍물, 공예 등을 체험하는 '곰두리 아카데미', 전국 최초의 다문화 가족단위로 구성된 '다문화M오케스트라',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한 '꿈꾸리 오케스트라'가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또한 대인시장 상인들이 뭉친 '상인예술단'이 있다. 상인들이 연기나 춤을 배우고 시장이야기를 담은 대본을 만들어서 마당극 공연을 한다.

주목할 점은 이 문화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재능나눔 형태로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다시 나눔으로써 문화생태계 내에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문화나눔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역할에 크게 주목한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분야의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나 문화마케팅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문화예술의 창조적이며 품격있는 이미지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로 연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문화나눔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다.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 소통과 공감을 통한 문화나눔은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힐 희망의 등불임에 틀림없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2012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만전 기하자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2일 현재 131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여수박람회는 생산 유발효과가 전국적으로 12조2천328억 원에 달하고, 고용은 7만8천83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 기간에는 외국인 55만 명을 포함해 10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람회 준비는 전시관과 각종 부대시설 등 각 부문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률 89%를 보이는 전시관 등은 2월에 완공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조직위는 당초 100개국, 5개 국제기구 참가를 목표로 했지만 이미 106개국, 8개 국제기구가 참가 신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여수는 인프라 및 지명도 등 지역 특성상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수공항 활주로 400m 연장 및 신·구항 연결도로 신설 미비 등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돼 성패 여부가 불확실하다. 외국인 유인을 위한 지명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다. '볼거리'와 숙박시설 확충 역시 성패의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홍보와 예산 지원은 필수조건이다. 재외공관을 동원한 홍보와 인프라 구축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업이다. 여수박람회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전남도, 여수시, 박람회조직위 등은 '볼거리'와 숙박시설 확보, 시민들의 적극 참여 등 손님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제 남은 131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만 성공 개최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잇단 자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진상 파악은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A군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북부경찰은 1일 "A군이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급생 진술 등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 3명이 29차례에 걸쳐 A군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아온 것을 확인, B군을 입건했으며 다른 2명에 대해 보강수사 중이다.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받아들여 새롭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번 사건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어느 학교 후미진 곳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A군 사건은 수십차례나 상습 집단폭행을 당해왔는데도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담임교사는 폭행 당일 A군을 상담했음에도 그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고도 학생 지도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성적비관을 강조하며 은폐하려 했다니 한심할 뿐이다. 경찰이 수사중인 조기 방학 이유 등 학교 측의 의혹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학교나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청원경찰 배치 등과 같은 뻔한 대책으로 일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정부는 우선 인성교육을 중시하고 교내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고민을 풀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모들도 제 자식 감싸기만 할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생활태도 등을 관심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열려있는 법원, 참여하는 재판

양 영 희

얼마 전 법원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언제든지 재판을 보러 와도 되는지 질문을 받았다. 부모님과 함께 온다면 언제라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더니, 이번에는 왜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보도록 허락하는지 묻는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특별한 허락이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법률은 재판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감시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판의 속성상 법원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로부터 칭찬받기는 쉽지 않다. 재판에서 진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기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여 법원에 대하여 반드시 좋은 감정을 갖는 것도 아니다. 본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법원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재판을 직접 받아보거나 증인 등으로 법원에 와본 사람들보다 법원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일반 국민은 법원이 권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법관과 법원직원들이 딱딱하고 권위적일 것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다가 아직도 법원에 전관예우 등의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언론의 보도, 극의 흥미를 위해 재판을 실제와 달리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영상매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법원을 제대로 알면 불신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은 늘 개방되어 있으므로 짬을 내서 재판을 방청해보기를 권해 본다. 감시와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고 또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법원에 오면 법원직원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더 친절한지, 법관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친화적인지, 법원구성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기 위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프로그램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정방청, 영상물시청, 법관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되는데, 그동안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성인에게도 그 문호가 열려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법원과 재판을 이해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외에도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국민을 재판에 직접 참여시키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당수의 사건을 조정위원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광주지방법원에서만 약 400건의 민사사건을 조정위원들이 처리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조정과정에 군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들을 참여시키는 배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도 한다. 또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국민참여재판은 향후 그 대상범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재판참여의 기회가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무쪼록 2012년 새해에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껏 높아져 국민의 행복지수도 더불어 상승하기를 기대해본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 고

지방행정체체 개편 논의 서둘러야

박 하 일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주요 골격은 100여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목적하에 여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통과 시킨 데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를 올해 2월 출범시켰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홍보도 미흡했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목포·무안 지역 및 여수·광양·순천, 그리고 광주시와 담양군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이다. 우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진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생활권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목포·무안과 같이 동일 생활·경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 통합될 경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할증·공공서비스 수수료 추가 부담 등의 기본적인 것에서부터의 주민불편이 해소된다. 실제로 통합시 무안(남악 신도시)에서 목포구역을 통행할 경우 200원의 할증 요금이 완화됨으로써 주민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같은 사례는 일상생활에서도 무수히 많다.

혹자는 시군구가 통합되면 현행 읍면동 체계가 사라져 주민생활에 혼돈이 초래되고 주민자치가 약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시군구가 통합되더라도 통합 창원시와 같이 읍면동 단위는 유지되고 지자체 행정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신설을 추진할 수 있어 오히려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인구·면적 등 재정운용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고 광역단위의 지역 발전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창원은 통합 후 인구 109만 명·재정규모 2조2천억 원의 전국 최대 기초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통합 시군은 통합 특례에 의거 지방교부세 등 직접적 재정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광특회계 국고보조금 상향조정 및 SOC 예산 우선 배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잇따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규모 자치단체들의 통합은 시대적 추세이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정·촌(市 町 村) 합병 특례법을 통해 자율통합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으며 영국 또한 잉글랜드 비 대도시권과 웨일즈·스코틀랜드 지역에 광역·기초단체 통합 시 도입을 추진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 약 30%의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일부에서는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기도 한다.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학계 등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인접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분명 미래 우리의 지형도를 바꿀 훌륭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우선 우리 지역의 통합 논의부터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전남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주말농장 소개 전문 책자 만들어 도시에 홍보하자

도시인들에게 주말농장은 자연을 벗삼아 인생을 배우고 땅을 일구는 즐거움을 주는 기회이다.

러시아는 도시민의 70%가 '다차'라는 주말농장을 갖고 있다. 프랑스 국민 5명 중 1명이 1년에 하루 이상 농촌체험 관광을 하며, 독일도 무려 400만 개소에 이르는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카르텐에서 도시인들이 휴식을 갖는다. 이는 인구 20명당 1개꼴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이 같은 주말농장은 우리 농촌에서도 못할 게 없다고 본다. 물론 현재도 주말농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나 수준이 너무 미미한 편이다.

앞으로 전국 주말농장 소개 전문 책자를 만들어 전국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뿌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각 회사 빌딩, 은행, 병원 고객 대기실에 안내책자로 비치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도시인들이 이 안내책자에서 정보를 얻어 주말과 휴가 때 팜스테이 농장이나 자매결연 마을을 방문하여 온 가족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도시인이 농촌으로 주말 농장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넉넉한 인심이 있는 한적한 시골마을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조금씩 출자하여 농촌 빈집과 텃밭을 구하고 번갈아 이용하는 것도 체재형 주말농장의 좋은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도시민은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고 농촌지역은 활력을 되찾을 농도 상생의 길이기도 하다.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보면 도시의 부모님도 농촌의 노인분들도 흐뭇하기는 마찬가지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엔 자녀의 손을 잡고 농촌으로 봄나들이를, 여름엔 더위를 피해 휴가를, 가을엔 단풍놀이와 수확의 기쁨을, 그리고 겨울엔 김장도 담그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고향.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이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터전인 농촌을 더 사랑하자!

▲이기현·광주시 북구 용봉동

無 等 鼓

새해 운세

우주의 삼라만상은 연약한 인간에게 경이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자연현상이나 인간현상을 관찰하여 미래의 일이나 운명을 내다보고 예언하고자 하는 점술(占術)이 원시사회부터 성행했다. 인간사를 좌우하는 신의 의지를 파악하고, 몸과 마음에 새겨진 길흉화복의 연보를 알아내 그에 맞게 행동하고자 했던 것이다.

새해가 밝으면 신년운세를 보는 것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앞일을 미리 알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다. 전통적으로 음력 정초에 행해졌던 윷점과 오행점, 토정비결을 통한 신수(身數) 보기 등이 대표적이다. 토정비결책을 사다가 직접 그해 사주(四柱)를 보거나 복술가를 찾아가서 묻기도 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새해맞이 점복(占卜) 풍경도 바뀌고 있다. 점집 대신 인터넷 사주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신년 운세보기가 인기다. 사주팔자, 토정비결, 별자리 등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개발된 덕분이다.

그렇다면 역술로 본 올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어떨까. 2012년 임진(壬辰)년은 오행 중 수(水)에 해당하는 임(壬)과 토(土)에 해당하는 진(辰)이 합쳐진 해로 흙이 물기를 머금고 만물을 소생시킨다는 긍정적 전망이 많다고 한다. 12간지 동물중 가장 상서롭다는 용의 해로, 60년만에 돌아온 '흑룡(黑龍)'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반면 한반도 정세는 지난해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더욱 불투명해졌고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굵직한 국내외 이슈가 산적해 변화무쌍한 해가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새해 운세풀이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토정비결'은 예언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한다. 덕을 쌓고 악행을 멀리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에너지를 전한다. 점괘나 운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